

특특뉴스

5월 수입차 판매 2.4% 줄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올해 5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2만3,512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는 1.9% 증가한 수치다.

올해 5월까지 누적 대수는 10만8,314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각각 7,388대, 6,402대로 1~2위를 차지했다. 벤츠는 작년 동월 대비 3.9% 감소했고, BMW는 2.3% 증가했다.

이어 아우디(1,865대), 폭스바겐(1,182대), 미니(1,087대), 볼보(1,015대), 포르쉐(702대), 지프(591대), 링컨(582대) 순으로 잘 팔렸다.

그래픽 경제

세계 가계 부채 비율 상위 10위국

GDP 대비, 2022년 1분기 기준



자료: 국제금융협회(IIF)

한국 가계 빚 여전히 세계 1위

올해 들어 수개월간 가계대출이 다소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은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6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식품기업 83%, 국제 곡물가 급등에 경영 악화

중기중앙회, 213개 중기 실태조사

73.7% “영업이익 전년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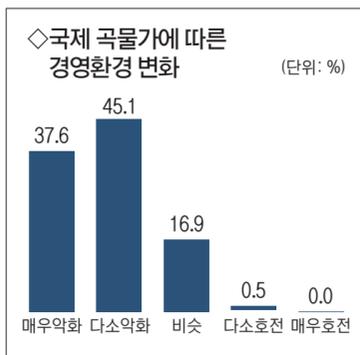
원재료값 올라도 가격인상 어려워

식품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기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수입농산물가 급등에 따른 식품제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품제조 중소기업의 82.6%가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매우악화 37.6%+다소악화 45.1%)됐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213개 식품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기업의 73.7%는 수입농산물가 급등 영향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기업의 4곳 중 1곳(26.3%)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3.9%는 20% 미만 10% 이상 감소, 23.5%는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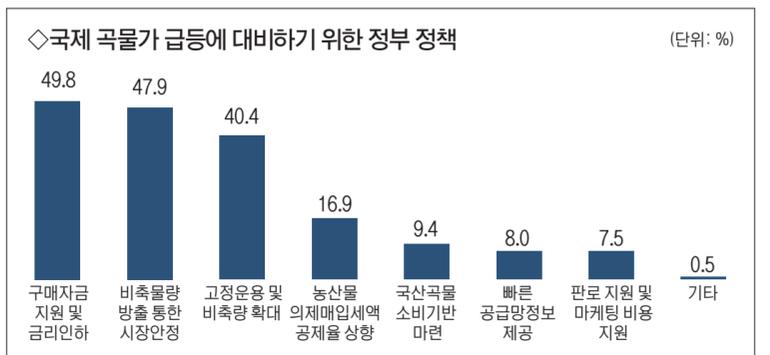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가장 큰 애로에 대해 ‘원재료 가격상승에 비해 제품가 인상 어려움’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으며, 인



건비, 자재 등 생산물가 동반상승으로 수익성 악화(41.8%), 원재료 공급 부족으로 수급 차질(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재료가격은 전년 대비 ‘10% 이상 20% 미만’ 증가할 것이라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곳 중 1곳 이상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제품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73.2%)이 원가증가분보다 적게 인상하거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35.7%는 당장 계획은 없으나 단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고려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3.9%는 원가증가분보다 적은 수준으로 인상, 13.6%는 특별한 인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인상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



해서는 타사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58.6%)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납품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24.1%), 경영여건 상 감내가능(1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수입곡물 수급전망에 대해서는 71.4%가 원활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국산곡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곡물로 교체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국산 원재료 가격이 높아 교체가 어려움(58.7%)’이 꼽혔다. 이외에도 ‘대량납품 불가 등 수급문제(22.8%)’, ‘원료 원산지·배합 변경 시 품질유지 어려움(10.9%)’ 등이었다.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의

49.8%는 식량원료구매자금 지원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 꼽았으며, 조기구매 등 비축물량 방출 통한 시장안정(47.9%),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필요(1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치솟는 원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식품원료구매자금 지원요건 완화 및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식품중소제조기업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TRQ물량 확대 및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원자재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 함께 해요”

광은, ESG비건데이 실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지정

광주은행은 7일 본점 구내식당에서 송중옥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ESG 비건데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배설물, 축산업을 위한 산림 벌목, 사료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의 주범으로 확인되면서 육식 소비를 줄이고,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비건이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ESG 비건데이’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광주은행 구내식당은 콩고기, 콩고구마, 콩수제교자만두 등 식물성 식품으

로 식단을 구성했으며, 동물성 식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0-80% 줄일 수 있는 저탄소 식단에 대해 안내하는 캠페인도 전개했다.

광주은행은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ESG 비건데이’로 지정하고, 직원들에게 다양한 채식 식단을 맛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탄소 저감 활동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어렵게만 느끼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임직원들과 함께 ‘ESG 비건데이’를 실시했다”며 “광주·전남대표은행의 사명감으로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을 실천해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송중옥 광주은행장(사진 맨 오른쪽)이 임직원들과 함께 ‘ESG 비건데이’에 동참해 저탄소 식물성 식품 식단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화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



-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창업 및 경영컨설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